

16/11/13(주) 주일예배 / 제목 :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살전 5:16~18) p. 333

(16) 항상 기뻐하라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뻐해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어느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사 부부가 다투다가 큰 소리가 오고갔습니다. 이에 화가 난 아내가 저녁밥도 안하고 건넌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한동안 정적이 흐르더니 따분해진 남편이 먼저 문 앞에 가서 “여보 미안해 문 좀 열어요.” 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가 자주 암송하던 성구를 인용하여 아내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했습니다. **(계3:20)**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을 들은 아내는 성경말씀으로 나오는 남편에게 자신도 성경말씀으로 대답했습니다. **(마16:23)**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에 질세라 남편 역시도 다시 성경 말씀으로 응수합니다. **(엡4:26-27)**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남편은 한 술 더 떠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고전7:5)**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결국 아내는 성경말씀에 밀려 할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부부는 마주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장벽을 만든 것은 다툼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를 화합하게 만든 것은 성경말씀이었습니다. 남편이 화가 난 아내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동안 암송했던 성경말씀으로 대응하여 아내의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한쪽만 노력해서는 안되고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결혼생활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엮여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소통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소통시키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찬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탄 길로 가지 맙시다” 성경말씀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15:10-11)**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기쁨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로 통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란 말은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쁨은 소통에서 나옵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하고 노래하며 살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기쁨이란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쁨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1. 기쁨은 치료의 양약이기 때문입니다.

웃음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카케’입니다. 그는 미국의 유명한 '토요 리뷰'의 편집인이었습니다. 그는 소련의 후르시초프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과 아주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소련이 미사일을 쿠바에 설치하려고 할 때 미국과 전쟁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케네디와 후르시초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한 사람이 노만 카슨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에서는 국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1964년 50세가 되던 해에 희귀한 병인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이 병은 자가면역질환의 하나로 원인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희귀병종의 하나입니다. 류머치스 관절염의 일종으로서, 뼈와 뼈 사이에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뼈를 감싸고 있는 염증이 생겨서 심해지면 인대가 시멘트처럼 굳어지는 병으로 심한 경우 내장기관까지 굳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몸이 통증으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의사들은 그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형선고를 받고 힘들게 살던 그는 한스 셀리가 쓴 [생의 신비]란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우연히 잠깐 17장 22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잠17:22)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가장 좋은 약은 마음의 즐거움에 있구나 나도 오늘부터 웃으며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는 별장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먹을 음식과 진통제, 그리고 죽더라도 웃으며 죽자는 생각에 재미있는 코메디 비디오 테이프를 잔뜩 싸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아내에게는 매일 하루에 한 번만 전화를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어느 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죽은 것으로 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머물면서 싸가지고 온 코메디 비디오를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웃겼는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며칠동안 웃으면서 생활을 했는데 이상한 증세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실컷 웃은 날에는 진통이 심하지가 않아서 진통제를 덜 먹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잘 때에도 다른 때 보다 편하게 잘 잤습니다.

이런 증상을 체험한 그는 그 이후로 비디오를 보고 더 많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웃으면 웃을수록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날부터 구부러졌던 손가락 하나가 펴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와 자녀들이 그를 방문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펴진 모습을 본 아내와 자녀들은 감동해서 울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노만의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은 함께 머물며 노만과 함께 웃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함께 폭소를 터뜨리며 웃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몸이 점점 더 호전되어 나중에는 완전히 나았습니다.

웃음으로 치료된 그는 너무 신기해서 그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의사들을 만나고자 하버드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에 찾아가서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의과대학 교수들은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그의 끈질긴 설득으로 결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웃음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웃음에 대한 비밀을 알아갔고, 더구나 웃음의 치료효과, 영향력 등 놀랄만한 사실 수 백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노만도 자신의 전공과는 관계가 없지만 의과대학 교수 밑에서 보조 일을 시작하며 웃음 치료에 대한 연구를 하여 의과대학을 정식으로 다닌 사람이 아닌데 의과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후 노만 카슨스는 미국 UCLA 대학교에서 75세까지 웃음과 건강연구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노만 카슨스는 베스트셀러가 된 그의 저서 <질병의 해부>에서 '웃음은 방탄조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균, 병원균, 바이러스도 웃는 사람에게는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웃음은 마음과 정서를 건강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한번 크게 웃을 때마다 엔돌핀을 포함해 21가지의 건강에 유익한 호르몬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웃음은 불안, 짜증, 공포와 관련된 교감신경을 억제하고 안정, 행복, 편안함을 지배하는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합니다. 박장대소와 요절복통으로 웃으면 650개 근육, 얼굴근육 80개, 206개의 뼈가 움직이며 에어로빅을 10분 동안 하는 것과 같아 산소공급이 2배로 증가하여 신체는 시원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활력이 솟구치고, 늘 긍정적인 상상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처럼 (잠17:22)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기쁨을 말하는데 이 기쁨은 양약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쁨이 아닌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뼈가 마른다는 것은 머지 않아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치료의 양약이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는 ‘포기’의 예화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1999년 아주 추운 겨울날 자살을 결심한 한 남자가 소주 두 병을 마시고 한남대교 난간으로 다가갔습니다. 뇌수술을 받고 사업 실패로 이혼을 하는 등 대형 사건을 다섯 차례나 겪고 난 그 남자는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서 다리를 난간 위로 올렸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중년 남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 죽어요 좀 기다렸다가 따뜻한 봄이 되면 뛰어내려요.” 그 말을 듣자 자살하려던 그 남자는 순간적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죽으려는 사람을 붙잡고 뜯어 말리기는 커녕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 죽으니까 따뜻한 봄날까지 죽음을 기다렸다가 뛰어내리라는 말에 어이가 없기도 했고 정말 죽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난간에 올린 다리를 슬그머니 내리고 그날 그 중년 남자와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지금의 사업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든든한 후원자가 된 그 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때 심각하게, 적극적으로 말렸다면 자네는 정말로 뛰어 내렸을 걸세.”

진 대표는 그 일을 겪은 후 성격도 낙천적이고 유머도 풍부한 CEO로 거듭 태어나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인들의 도움과 우여곡절 끝에 그의 회사는 중국 내에서 한국의 대표적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업계에서 걸어 다니는 <유머 CEO>로 불리고 있는데 위트와 유머로 무장한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 기업의 대표라는 직함에 걸맞게 무게를 잡을 만하지만 "적절한 유머와 위트를 구사할 줄 아는 리더가 조직을 성공으로 이끈다."는 지론으로 인생역전을 이룬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한중엔터테인먼트로 성공한 **진 대표**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웃음의 힘은 절박한 위기까지도 넘길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웃음은 죽을 사람도 살려냅니다. 웃음은 웃는 사람에게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도 활력을 줍니다. 항상 웃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웃음은 웃는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에너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웃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기쁨은 치료의 양약이기 때문입니다.

**2. 기쁨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웃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웃음과 관련된 내용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는 말 안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후에 만족해 하시는 행복한 웃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그들을 '에덴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행복, 기쁨,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함을 나타낼 때 가장 잘 표현하는 감정은 웃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감정을 드러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갓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시면서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적도 있으셨습니다. 성전을 장사소굴로 만든 사람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을 볼 때에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웃음이 없는 종교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웃는다는 것은 웬지 불경건하고 천박하다고 여겨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은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그리고 3년 동안의 공생애 가운데 한 번도 웃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대부분의 예수님 그림은 근엄하신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랄프 코작(Ralph Kozak)이 그린 '웃으시는 예수님'(Laughing Jesus)이라는 그림은 좀 다릅니다.<사진>

여러분, 여러분은 그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웃는 모습이 경박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 깊숙이에서 우러나는 기쁨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70명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온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눅10:17)** "칠십 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

신들도 우리에게 행복하더이다.”

전도하러 갔던 제자들은 귀신들이 쫓겨나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기쁨이 가득한 모습으로 보고합니다.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왔다’고 할 때 ‘기뻐하다’(카라)는 단어는 ‘흥분된 상태에서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러 나갔다가 귀신 들려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자 귀신들이 행복하고 떠나갑니다. 귀신 때문에 괴롭힘을 받던 사람들이 치유되고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흥분되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고를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눅10:2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귀신들을 제압하고 복음을 전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도 무척이나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할 때 ‘기뻐하다’는 단어는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말할 때 쓰인 단어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할 때 쓰인 단어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모습,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행복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서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때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겠습니까? 그 때에도 근엄하신 표정으로 속으로만 웃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서는 환한 웃음으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활짝 웃으셨을 것입니다. 큰 소리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웃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십자가를 위해서 오시긴 하셨지만 늘 십자가의 고통만을 생각하며 사신 것은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만을 생각하며 심각한 표정으로 사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숨이 막혀서 예수님 곁에 머물지 못했을 것입니다. 잔치를 즐기실 때 예수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잔치자리에 앉아 계셨다면 그 잔치가 잔치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실 때에도 늘 근엄하신 표정으로 인상을 쓰고 식사를 하셨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식사를 끝마치고 나면 신경과민으로 늘 배탈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늘 근엄하게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론 항상 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도 역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뻐하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10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70명의 제자들이 기뻐했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런 기쁨으로 매일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쫓겨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기뻐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눅10:20)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의 마음에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장차 하늘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에도 기쁩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장사가 잘 되어 돈을 많이 벌었을 때에도 기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살핀 후에 기분 좋을 때에만 기뻐한다면 '항상' 기뻐할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언제나 바뀌기 때문입니다. 돈이 잘 벌릴 때가 있는가 하면 장사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초고속 승진하던 사람도 언젠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공한 것 같지만, 그 성공이 언젠가 내게 아무 의미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모든 일이 잘 풀려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엔가 막다른 골목 앞에 선 것과 같은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기쁨은 그런 상황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기뻐하려 할 때에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쁨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십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천만 다행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아직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치료의 양약인 기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 기쁨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핵심 : 기쁨은 치료의 양약이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도록 힘씁시다.

**요약정리** /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기쁨은 치료의 양약이기 때문입니다.
2. 기쁨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